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iew

2000년 6월호

이번 호는 교통시설을 특집으로 런던의 Jublee Line의 신역사와 독일의 버스 정거장



등을 다루었다. 또한 런던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는 육교 디자인과 런던 Royal Court 극장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다루었다.

■ 교통시설

영국 런던의 새롭게 개통된 Jublee Line의 각 역을 집중 조명하였다. 영국 현대 건축의 면모와 함께 지하건축과 지하 교통 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도 등을 읽을 수 있다. 한편 독일의 버스 터미널과 정거장 등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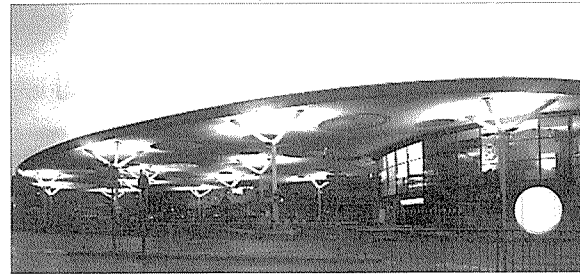
▶ Foster+Partners의 런던 Canary Wharf 지하철 역사



West India Dock이 공원으로 다시 조성되고 그 지하에 이 역은 위치하고 있다. 역의 입구는 타원형의 글래스 덮개로서 역을 외기로부터 보호하고 빛은 더 깊숙히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 Jublee Line의 시행자인 Paoletti의 기본 원칙은 승객자들의 명확한 동선 계획과 각 역마다 퍼블릭 스페이스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oster는 주어진 대지와 볼륨에서 효율적인 동선체계를 명확하게 풀어내었다. 일종의 미래적인 흥미진진함이 이 역을 통해 경험된다. 빛이 가득한 홀에서의 수많은 에스컬레이터들이 승객들을 포스터타운(Fosteritos) 글래스홀에서부터 티켓홀까지 나르고 있다. 건물의 보다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면 지상에서 27m 아래에 플랫폼이 위치하고 있다. 그 스케일은 차치하고라도 이 역에 있어서의 놀라운 그 구조체의 유려함과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사이의 긴장감에서 온다.

▶ Alford Hall Monaghan Morris의 Walsall 버스 정거장



Alford Hall Monaghan Morris는 복잡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해결하면서 단편화된 타운스케이프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능적이고 세련되게 해결하였다. 타원형의 캐노피는 전혀 다른 도시의 영역들을 통합하면서 버스 정거장의 강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다. 타원형은 차량 흐름의 질서를 반영하며, 실물크기의 버스 라인 모델은 가장 효율적인 레이아웃이 가능토록 하였다. 대지의 남서쪽 코너에는 두 개층의 대합실 건물이 있으며, 티켓홀과 사무실 등이 위치한다.

그밖에 ▶ MacCormac Jamieson Prichard의 Southwark 지하철역 ▶ Ian Ritchie의 Bermondsey 지하철역 ▶ Michael Hopkins & Partners의 Westminster 지하철역 ▶ Eva Jircina Architects의 Canada Water 버스 정류장 ▶ Von Gerkan, Marg

& Partner의 베를린 Spandau 기차역 ▶ Silcher Werner+Redante의 Hamburg 버스터미널 ▶ Michael Culpepper and Greg Tew의 미국 Idaho 버스 정거장 등의 교통시설이 자세히 다뤄졌다.

■ Design Review - Hodder Associate의 육교

Manchester거리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있는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삼각형의 유리판과 스틸구조물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튜브의 양 끝에서 압축 링으로 지지하도록 하였다. 하중을 후프로 전달하는 1 빔 위에 목재 데크가 있으며, 데크 아래부분에 조명과 난방 설비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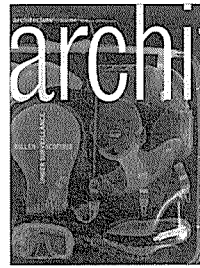
■ Interior Design

▶ Haworth Tomkins의 런던 극장 1888년에 세워진 London Royal Court는 1956년 이래로 English Stage Company가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중반부터는 건물 노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어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이 시행되었다. Haworth Tomkins는 발굴과 보존의 상상적인 결합으로 고고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그 외에 ▶ Saucier & Perrotte의 Montreal 뷰티 살롱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Architecture

2000년 6월호

베니스 비엔날레의 건축부분 큐레이터인 Massimiliano Fuksas와의 인터뷰와 MoMA에 설치된 Shigeru Ban의 종이 구조물을 최근 소식



으로 다루었다. 특집으로 이론적인 건축탐구에서 그것을 실제 건축작업으로 실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 이론에서 실제로

급진적 성향의 지적 환경과 불경기의 1970년대는 야심찬 건축가들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끌었다. Peter Eisenman은 thinktankmf 시작하였으며 Lebbeuse Woods는 도시의 목시록에의 비전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Diller+Scorpidio는 무대장치에서 설치작업까지 모든 스케일의 작업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바뀌었다. 호경기와 Modernism의 인기 그리고 디자인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교양있는 건축주 덕분에 건축가의 이론적 작업이 실제 건물로 옮겨지고 있다.

▶ Allied Works Architecture의 포틀랜드 Widden+Kennedy World 본사 사옥



광고회사를 위해 참고건물에서 복합적

인 내부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Diet Coke, Nike, Miller 맥주, Epson 등의 굵직한 광고만을 맡아왔던 이 회사는 큰 성장을 겪었고, 가족적인 집단에서 Community의 개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Plaza가 없었다. 새로운 사옥이 필요했고, Allied Works는 이들을 위해 1900년대에 지어진 참고건물의 내부에 vertical plaza를 제안했으며, 오디오리움과 meeting place를 위치시켰다. 그 밖에 건축가의 사고가 녹아있는 작품으로서 ▶ Della Valle+ Bernheimer dnk 샌프란시스코 Federal Plaza 랜드스케이프 ▶ Studio Works의 밀워키 몬테소리 학교 ▶ LWPAC의 Chile, 건축학교 스튜디오 등이 소개되었다.

■ Diller+Scofidio의 Real Building

그들은 최근에 두 개의 건물을 완성했다. 뉴욕의 Seagram Building 내부에 있는 Brasserie 레스토랑과 일본 Gifu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로서 이 작품들은 그들의 복합적이고 비 관습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들의 과거와 미래의 프로젝트를 함께 다루면서 시간적 흐름 속에서 그들의 작품을 재조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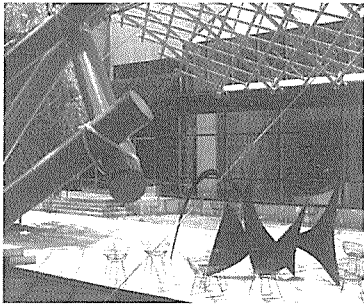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간과 형태에 대해 이야기한다. 건물과 작품들은 그냥 받아들여졌던 일상의 관습들(식사예절과 같은)의 패턴을 드러내고 그러한 약속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작용들을 밝힌다. 건물은 단순히 우리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며 움직이게 한다.

■ 기타

▶ 2000 베니스 비엔날레의 디렉터. Massimiliano Fuksas와의 인터뷰 도시이론가들이 city는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다고 주장하며 urban realm과 같은 단어를 선호하는 반면에 Fuksas는 "Citta(City)"를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 그는 그것이 megalopolis나 urban realm과 같은 단어를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소에 속해있는 고유가치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 Shigeru Ban의 종이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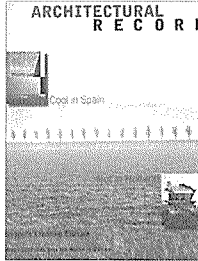


MoMA의 안마당에 종이로 만든 막대를 엮은 기념비적인 folly가 만들어졌다. 습도가 높은 여름 날씨에 녹록해질 염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7/8inch 두께의 tube는 안쪽으로 방수처리가 되었다. 8월 1일까지 설치될 예정인 이 구조물은 Hannover Expo2000의 일본관에 쓰인 구조와 같은 것이 사용되었다.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세워졌다 철거되는 속성 탓에 재활용될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이 더욱 돋보인다.

Architectural Record

2000년 7월호

Rem Koolhaas의 최근 동향과 그의 건축관을 조명한 기사가 실렸으며, 보다 이성적이고 차가운 성향의 네



델란드 건축과 감성적이며 뜨거운 느낌의 스페인 건축의 동향을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살폈다. 건축유형 연구로는 공항으로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산 디에고 공항, 상하이 국제 공항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 Rem Koolhaas와 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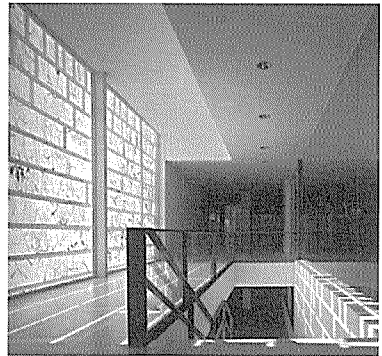
제 23회 Pritzker Architecture Prize를 수상한 Rem Koolhaas와 그의 일련의 작업들을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보다 건축적인 작업에서 거리를 두어 지어지지 않은 것의 잠재력에 집중하여 건축적인 컨설턴트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의 사무실, AMO를 만들었다. Schiold 공항의 이전 프로젝트를 마케팅, 교통,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팀과 협업하여 작업하였다. 그들의 디자인 결과물은 단지 Schipole 공항의 로고였다.

■ 스페인, 네델란드 현대건축

스페인과 네델란드의 건축은 유럽에서 아직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Modernism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on데, Calatrava 그리고 Kolhaas와 같은 Master뿐 아니라 젊은 건축가세대들은 게임의 법칙들을 비틀고 변형시킨다. 여기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그러한 특징들에 의해 관심의 주목이 된다. 스페인과 네델란드의 건축의 차이점을 단순화하여 표현한다

면, 전자는 보다 조형적이고 형태적이며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네델란드의 건축은 도시계획과 생태적인 관심, 그리고 철저한 이성주의에 기반을 두어 Web상으로부터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 Madridejos and Sancho의 마드리드, San Fernando de Heares 시청



이 건물은 유명한 바스크계 조각가 Eduardo Chillida가 차용한 방식인 "공간적 투사(spatial projection)라는 방법으로 조직되었다. 속이 꼭 찬블록에 여러 가지 방향의 보이드로 내부가 비어지는 방법으로 Chillida는 그것을 각각의 다른 공간적 밀도라고 불렀다. Madridejos and Sancho는 기존 건물에 폐허로 남아있는 바로크 입면과 도시적 상황에 위와 같은 벡터적인 접근 방식으로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 건물은 두 개의 아누스적인 입면을 가지고 있다. 주 입구와 그 상부에 시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좌우대칭의 바로크적 입면과 깊은 보이드로 잘려나간 추상적 구성의 배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보이드로서 반투명한 오닉스와 그 뒤를 지지하는 투명한 유리는 발광하는 보이드를 구체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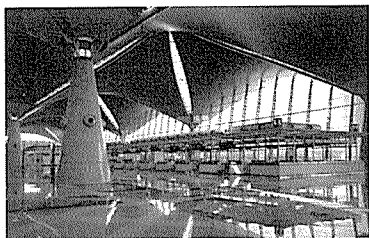
▶ MVRDV의 하노버 엑스포 2000의 네델란드 관

"Holland Creates Space"라는 이 건물의 이름은 네델란드가 해수면보다 낮은 땅을 간척하여 꽃밭으로 일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지붕위의 프로펠러는 우수통에 고인 빗물을 식혀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며 발전을 한다. 그리고 지붕아래로 내려오는 물은 화장실의 플러쉬용물이나 식재된 나무들의 관개용수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하수들은 Biomass 필터를 거쳐 다시 지붕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밖에 스페인의 현대건축으로 ▶ Manuel de las Casas의 스페인 Institute Hispano-Luso ▶ Emilio Tunon의 마드리드 실내수영장 ▶ Carme Pinos의 인도교등이 소개되었으며 네덜란드 건축으로는 ▶ Neutlings Reidijk의 네덜란드 Utrecht 대학 Minnaert Building ▶ Meyers & Van Schooten의 ING 은행 본사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 건축유형 연구 - 공항

▶ Kisho Kurokawa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 공항은 주로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메인터미널과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 탑승자를 위한 콘코스, 그리고 장거리 국제선 승객을 위한 별개의 터미널로 구성된다. 이 별도의 건물은 지하의 고속 컨베이어 벨트와 지상의 people mover train에 의해 메인터미널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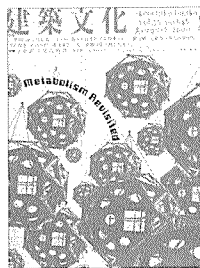
자연과 인공세계의 공생을 주장하는 일본 건축가 Kisho Kurakawa는 이 공항에서 열대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사이트는 한때 과수원으로 쓰여졌었기 때문에 숲속의 공항, 공항속의 숲이라는 메타포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 Gensler and SGPA의 San Diego 공항 ▶ Paul Andreu and Aeroports Paris의 Shanghi 국제공항 등이 분석되었다.

건축문화

2000년 8월호

이번 호에서는 '메타볼리즘 再考' 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본 건축가들의 근작 6



개를 소개하고 있다. 특집기사에서는 야츠카 하지메(八束はじめ)와 이시자키 준이치(石崎順一)의 대담을 축으로 메타볼리즘이 갖는 의미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재조명 해보고 있다.

■ 특집: 메타볼리즘 再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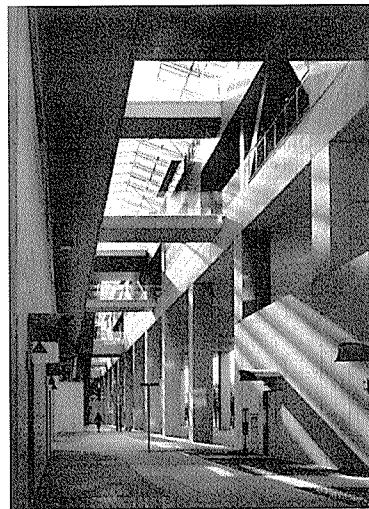


▶다시 보는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은 1960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 디자인 대회를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이 회의에 맞추어 발간된 『METABOLISM/1960』에는 이들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미래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그룹'으로 소개하고 있다. 메타볼리즘 그룹은 결성 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으며, 1970년 오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거치면서 차후 점점 그 열기를 잃어갔으나, 이들이 남긴 건축·도시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사회적 이슈와 발전된 기술의 결합: 결성된 지 40년이 흐른 지금 평가하는 메타볼리즘은 이들이 활동하던 당시 이들을 바라보던 시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좀 더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을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

한 이 시점에서 메타볼리즘의 의미를 역사적 배경, 사회적 영향력, 외국에 끼친 영향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잠재적 가능성들에 대해 짚어보려 하고 있다. 야츠카 하지메와 이시자키 준이치의 대담은 이러한 주제들을 축으로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대담자들은 메타볼리즘을 당시 일본이 처한 문제인 봉건적 부분들의 타파와 근대화, 이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기술의 사용이라는 문제와 접목시켜 이루어낸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바라보는 메타볼리즘에 대한 시각을 3편의 외국저자들의 에세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소개된 에세이는 Cherie Wendel-k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Metabolism」, Kok-meng Tan, 「SuperMetabolism, Mutant Metabolism in Singapore」, Alain Guiheuh, 「Architecture-Action and Metabolism」이다.

■ 작품



히로시마시립 基町고등학교

다음과 같은 6개의 최근작들이 소개되고 있다. ▶無有建築工房의 '六番町の 주택'은 주택의 설계자와 건축주가 함께 참석한 좌담회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요코가와 켄(横河健/横河設計工房)의 CESS·埼玉縣 환경과학국제센터는 층과 층 사이 설비배관 공간을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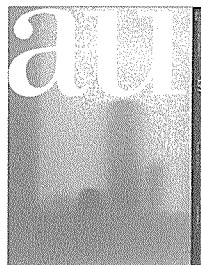
고 1.6m 정도로 여유있게 두어 변화해 가는 실험실의 설비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하라 히로시(原廣司)+아뜰리에 파이 건축연구소의 히로시마시립 基町고등학교는 가로변의 담장을 없애고 대신 가로에 면한 교사동을 2개층 높이만큼 필로티로 들어올려 경계를 짓는 한편 교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도시형 고등학교 건축의 한 예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커튼월을 사용한 입면처리, 중복도를 사용한 공간 배치 등은 도시형 교사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 ▶渡部和生/惟建築計劃의 '빛의 풍광: 東村보건복지센터'는 개방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 다른 작품 '빛의 공간: 병원부속시설'도 소개되었다. 岡田哲史건축도시계획연구소의 '富士北麓의 집'은 흑색 목재의 외관과 백색의 내부공간이 대조를 이루며 미니멀한 형태와 공간구성이 보여지고 있다.

a+u

2000년 8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북구의 건축가들(Nordic Architects)'로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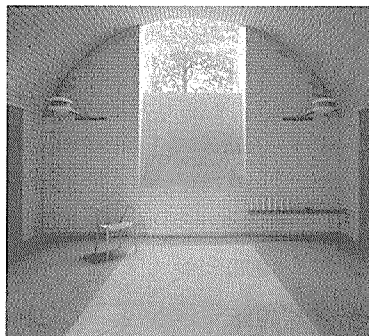
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Carl-Viggo H Imebakk, Claesson Koivisto Rune 등 다소 생소한 작가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북구 건축의 전통적 감수성인 간결하고 정제미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 특집: 북구의 건축가들(Nordic Architects)

▶ 스웨덴의 감성: Ramus Wærn의 에세이 '스웨덴의 감성'에서는 북구의 자연환경에 의해 형성되어온 미적 감성을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북구의 기후 풍경 등의 자연환경 QNs만 아니라 중부 유럽에 비하여 부족한 천연자원들은 이를 통한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도 중부의 중세 건축이 귀족적이면서 화려한 모습을 지녔던 반면, 스웨덴의 건축은 목재로 이루어진 소박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북구의 심플한 미학으로 굳어졌으며, 이것이 북구의 자연과 어우러진 독특한 감수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 Carl-Viggo H Imebakk의 애스커(Asker)화장터 영안실은 간결하면서도 음영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품이며, Claesson Koivisto Rune는 그의 건축사무실, 전시용 주택, 젊은 비즈니스



애스커(Asker)화장터 영안실



Claesson Koivisto Rune, 전시용 주택

맨을 위한 아파트먼트, 노 피크닉(No Picnic)산업디자인 스튜디오, 빌라 Wabi 등 5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는데, 초기 모더니즘적인 형태디자인, 흰색과 오렌지, 적색, 청색, 등을 병치하여 구성하는 신선한 색채사용, 미니멀한 공간에 목재의 인테리어를 조화시키는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로는 Márten Claesson의 'Emotional Functionalism'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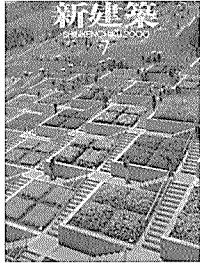
▶ Johan Celsing은 '여름별장과 스튜디오', 'Millesgården의 The New Art Gallery', '노벨 포럼(Nobel Forum)', '아트스케이프 노들랜드(Artscape Nordland)' 등 3개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목재와 벽돌을 이용한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Millesgården의 The New Art Gallery는 초기모더니스트의 미술관 디자인을 연상시키면서도 목재로 완성되어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위의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작가들과는 달리 핀란드의 Pirjo 와 Matti Sanaksenaho는 곡선의 처리 풍부한 내부공간의 구성 등에서 알토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작품은 'DESIGNER-Shop', '학생관(Students House)', Tammimäki의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신건축

2000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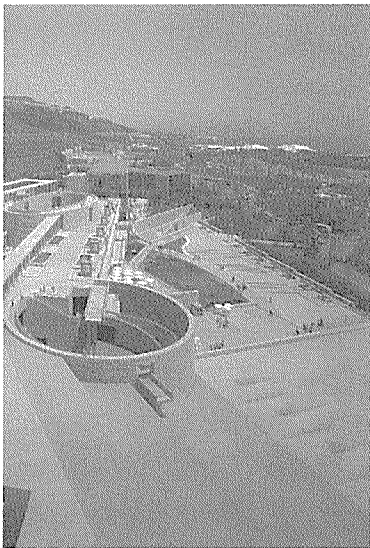
이번 호의 작품 소개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아와지 유메부타이 (淡路夢舞臺)'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



다. 안도 타다오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이 복합시설은 옛 석회석 채광장을 이용해 조성된 단지이다. 이외에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의 '요코하마시 무츠카와 지역 케어플라자', 타카마츠 신(高松伸)의 '飾勝町 종합 복지센터' 등이 소개 되었다.

■작품 소개

▶안도 타다오의 '아와지 유메부타이 (淡路夢舞臺)'



아와지 유메부타이는 온실, 전망테라스와 레스토랑, 바다의 교회, 야외극장, 호텔, 국제회의장, 백단화(百段花) 정원, 貝의 浜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이다. 과거 석회석 채광지였던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한 프로젝트로, 모든 건물이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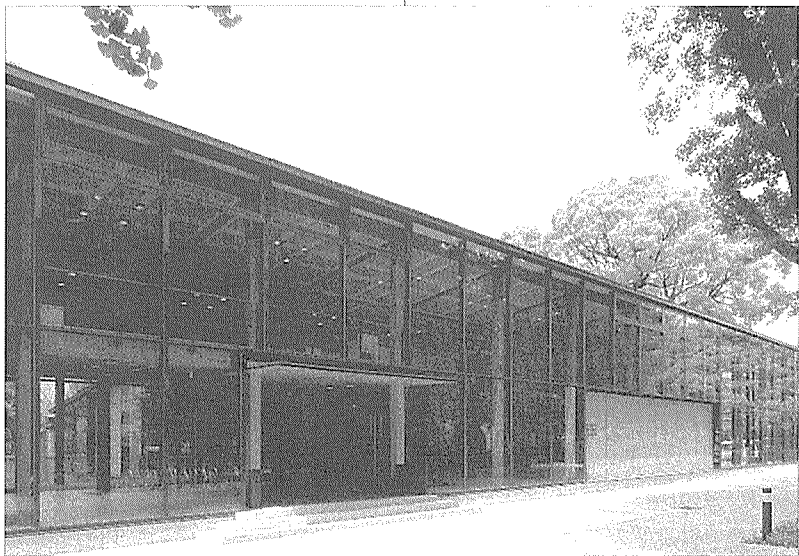
졌다. 바다를 면한 언덕의 끝자락에 위치한 대지에 지형에 따라 축을 엮거리며 배치된 구성은 '빌라 아드리아나'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富永謙의 비평에서 지적되고 있다. 크고 작은 건물들로 구성된 이 복합시설에서 안도는 이것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엮어가고자 하고 있으며, 언덕으로 올라가며 백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화단이나, 건물군의 지붕위로 캐스캐이드를 형성하며 조개모양을 짚어낸 연못에 이르는 물의 흐름 등은 과감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분 부분의 구성은 기존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구성들로 되어 있으나 이들을 한데 엮어 랜드스케이프에 대응하는 건물들의 혼성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의 '요코하마시 무츠카와 지역 케어플라자':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돌보는 데이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지가 주택지속의 복사면에 동서로 긴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가늘고 긴 건물의 형태는 이 부지조건에 비롯되었다. 작가는 건물을 일절의 분절 없이 단층의 단일 배스로 처리하는 과감한 구성을 채택하였으며, 가늘고 긴 건물은 내부에서 토막토막 그 기능에 의해 분절되

고 있다.

▶아마모토 리켄(山本理顯)의 히로시마 서부 소방서: 흰 색의 3차원 프레임에 적색의 육면체들을 띄워놓은 듯한 구성을 지닌 이 소방서는 그 건물의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건물내의 기능들이 모두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졌다. 관람자를 위한 동선이 따로 계획되어 있으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공간과 벽을 관통하며 보여지게 된다.

▶코야마 히사오(香山壽夫)건축연구소의 동경대학 야요이 강당
흑색 멀리언에 유리 커튼월, 미스의 크라운 홀을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은 투명한 유리 너머로 목조의 구조체를 드러내고 있다. 2층 높이의 이 건물은 요즘 활발히 건축되고 있는 일본의 목구조 건축물로서, 바닥과 천장, 가구 등을 모두 목재로 처리하여 철제의 난간과 외벽 프레임과 대조를 이루어내고 있다.



동경대학 야요이 강당